



第44回 全日本學生 兒童發明展 및 第34回 全日本 教職員 發明展 盛了

日本發明協會와 每日新聞社가 主催한 第44回 全日本學生 兒童發明創案展과 第34回 全日本教職員 發明展이 지난 3月 25日부터 31日까지 7日間 東京·日本橋 三越에서 開催되었다. 이번 兩展에는 開催 當日 發

明協會總裁 常陸官 부처가 參席하여 來賓과 任員 및 國際심포지엄 參加者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井深大 發明協會 會長과 小池唯夫 每日新聞社 論說委員長의 案内를 받아 展示場을 觀람한 후 兩展의 表彰式에도 參

席했다. 또 31日에는 皇太子와 함께 紀宮도 參席하여 河野洋平 國務大臣과 科學技術廳長官등 來賓의 영접을 받은 후 山內大介 每日新聞社 社長과 함께 井深大 發明協會 會長의 案内를 받아 展示場을 觀람하였다.

日, 特許事務 報酬額 引上 4月 1日부터 5천~1만엔 올려

日本辨理士會는 지난 3月 회칙중 「特許事務標準額表」를 一部 改正하고 이를 4月 1日부터 施行하고 있다.

引上된 내역을 보면 外國事件의 경우 特許와 實用新案의 出願料가 각각 1만엔이 오른 11만엔과 10만엔으로, 意匠과 商標는 5천엔이 오른 7만5천엔과 6만5천엔으로 각각 引上되었

으며, 이외에도 特許 15個항목·實用 14個항목·意匠 9個항목·商標 17個항목이 인상되었다.

또 지난 2月 1日부터 實施하고 있는 早期審査·審理制度의 導入에 따라 「早期審査에 관한 서류의 제출 11만엔 이상, 先行技術調査에 準한다」는 項目과 「早期審理에 관한 서류의 제출 8만엔 이상」의 項目을 新設했다.

EC 獨占금지정책 완화 연말까지 구체안 마련 승인 얻기로

유럽共同體(EC)는 하이테크 분야와 서비스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해 獨占禁止政策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인트벤처 프랜차이즈계약 知的所有權의 共有등에 대해서는 獨禁規定의 적용제외 기준을 확립, EC 기본조약(로마조약)

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C委는 年末까지 구체안을 만들어 閣僚理事會에서 승인을 얻기로 했다. EC가 獨禁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첨단産業을 美國과 日本 수준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知的所有權 盜用 韓國등 제소경고

知的所有權을 保護하기 위해 美國업체들로 구성된 國際知的所有權 동맹은 12日 外國업체들이 美國업체의 商標나 特許權·著作權등을 盜用함으로써 美國업체들의 年間 손실액이 약 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知的所有權 濫用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高소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동맹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知的所有權 濫用행위를 중단시킬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美 무역대표부에 高소장을 提出하고, 美國은 인도네시아를 일반특혜관세(GSP)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